국산차 '프라이드'·'베르나' 연비왕

〈기아차〉 〈현대차〉

경유·수동 나란히 ℓ당 22㎞ 주행

수입차는 프리우스 최고 연비 자랑

■ 2009년 국내출시 차량 공인연비

▲배기량 1,600cc 이하

순위	모델명	유종	제조사	변속형식	배기량	연비등급	연비	CO_2(g/㎞)
1	베르나 1.5디젤	경유	현대차	수동 5	1,493	1	22.0	122
1	프라이드 1.5디젤	경유	기아차	수동 5	1,493	1	22.0	122
3	모닝 1.0가솔린	휘발유	기아차	수동 5	999	경형	20.0	117
4	308 1.6 Hdi MCP	경유	한불(푸조)	자동 6	1,560	1	19.5	138
5	베르나 1.5디젤	경유	현대차	자동 4	1,493	1	18.3	147
5	프라이드 1.5디젤	경유	기아차	자동 4	1,493	1	18.3	147

▲배기량 1,600cc 이상

순위	모델명	유종	제조사	변속형식	배기량	연비등급	연비	CO_2(g/㎞)
1	프리우스	휘발유	도요타	무단변속	1,798	1	29.2	80
2	캠리 하이브리드	휘발유	도요타	무단변속	2,362	1	19.7	119
3	라세티 2.0 디젤 MT	경유	지엠대우	수동 5	1,991	1	19.0	142
4	Golf 2.0 TDI	경유	폭스바겐	자동 6	1,978	1	17.9	150
5	투싼 2.0 디젤 2WD	경유	현대차	수동 6	1,995	1	17.4	155

▲휘발유

순위	모델명	제조사	변속형식	배기량	연비등급	연비	CO_2(g/㎞)
1	모닝 1.0 MT	기아차	수동 5	999	경형	20.0	117
2	모닝 1.0 AT	기아차	자동 4	999	경형	17.4	135
3	마티즈 1.0 DOHC AT	지엠대우	자동 4	995	경형	17	137
3	베르나 1.6	현대차	수동 5	1,599	1	17	138
3	베르나 1.4	현대차	수동 5	1,399	1	17	138
3	프라이드 1.6	기아차	수동 5	1,599	1	17	138
3	프라이드 1.4	기아차	수동 5	1,399	1	17	138

▲경유

순위	모델명	제조사	변속형식	배기량	연비등급	연비	CO_2(g/㎞)
1	베르나 1.5 디젤	현대차	수동 5	1,493	1	22.0	122
1	프라이드 1.5 디젤	기아차	수동 5	1,493	1	22.0	122
3	308 1.6 HDi MCP	한불(푸조)	자동 6	1,560	1	19.5	138
4	라세티 2.0 디젤 MT	지엠대우	수동 5	1,991	1	19.0	142
5	베르나 1.5 디젤	현대차	자동 4	,493	1	18.3	147
5	프라이드 1.5 디젤	기아차	자동 4	1,493	1	18.3	147

▲LPG

순위	모델명	제조사	변속형식	배기량	연비등급	연비	CO_2(g/㎞)
1	모닝 1.0 LPI	기아차	수동 5	999	경형	16.3	108
2	모닝 1.0 LPI	기아차	자동 4	999	경형	13.4	132
3	쏘나타 2.0 LPI	현대차	수동 5	1,998	3	10.7	165
4	쏘나타 2.0 LPI(실리카 타이어)	현대차	자동 5	1,998	4	10.0	177
5	쏘나타 2.0 LPI	현대차	자동 5	1,998	4	9.7	182

▲하이브리드

순위	모델명	유종	제조사	변속형식	배기량	연비등급	연비	CO_2(g/㎞)
1	프리우스	휘발유	도요타	무단변속	1,798	1	29.2	80
2	캠리 하이브리드	휘발유	도요타	무단변속	2,362	1	19.7	119
3	아반떼 1.6 LPI	LPG	현대차	무단변속	1,591	1	17.8	99
3	포르테 1.6 LPI	LPG	기아차	무단변속	1,591	1	17.8	99
5	Lexus RX450h 하이브리드	휘발유	도요타	무단변속	3,456	1	16.4	142

〈자료:지식경제부〉

올해 국내에서 출시된 전 차종에서 일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와 현대자동차의 베르나,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가 가장 공인 연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프리우스 무단변속 차량의 연비가 29.2㎞/L로 국내 출시 차량 중 월등했고 베르나1.5(경유.수동)와 프라이드1.5(경유.수동)의 연비가 22.0㎞/L로 뒤를 이었다.

배기량 1천600cc 미만에선 베르나1.5, 프라이드1.5에 이어 기아차의 모닝1.0(휘발유.수동)이 20.0㎞/L, 푸조 308 1.6이 19.5㎞/L, 베르나1.5(경유·자동)과 프라이드1.5(경유·자동)가 모두 18.3㎞/L의 연비를 나타냈다.

1천600cc 이상급은 프리우스 다음으로 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(휘발유.무단변속)의 연비가 19.7㎞/L로 일본차가 강세를 보였다.

이어 지엠대우의 라세티2.0(경유·수동)가 19.0㎞/L, 폴크스바겐의 골프2.0 TDI(경유·자동) 17.9㎞/L, 현대차의 투싼2.0(경유.수동)이 17.4㎞/L였다.

휘발유를 쓰는 차종에서 연비 우수 모델은 모닝1.0MT(수동), 모닝1.0AT(자동), 마티즈1.0AT(자동), 베르나1.6(수동), 베르나1.4(수동), 프라이드1.6(수동), 프라이드1.4(수동) 순이었다.

최근 관심이 높아진 하이브리드 차종에선 프리우스, 캠리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현대차의 아반떼1.6LPI(LPG.무단변속)와 기아차의 포르테 1.6LPI(LPG.무단변속)의 연비가 17.8㎞/L였고 도요타의 렉서스 RX450h(휘발유·무단변속) 모델이 16.㎞/L로 측정됐다.

시내주행 모드란 실험실에서 자동차를 롤러 위에 올려놓고 시내를 주행하는 것처럼 감속, 가속, 정지 등을 반복하면서 1L당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균 시속은 30㎞ 정도다.

/연합뉴스

삼성전자 크리스 마스 이벤트

삼성전자가 아르헨티나의 최대 쇼핑몰인 'Unicenter'에 설치한LFD(Large Format Display : 정보표시 대형모니터). 삼성전자는 이 곳에 LFD 36대를 설치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상품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. 〈삼성전자 제공〉

코스피 산타랠리…1680선 돌파

외국인·기관 쌍끌이 20.99P↑… 코스닥도 반등

코스피지수가 '산타랠리'를 펼치며 1,680선을 넘어섰다.

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0.99포인트(1.26%) 오른 1,682.34로 장을 마쳤다.

이날 지수는 미국 뉴욕증시 상승 소식에 5.90포인트(0.36%) 오른 1,661.44로 개장한 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상승폭을 키우며 사흘 연속 상승에 성공했다.

개인은 6천28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727억원과 3천801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.

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계(2.75%)와 유통업(2.50%), 운수장비(2.01%)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.

현대차는 외국인 순매수로 3.86% 급등하며 장중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현대모비스(2.42%), SK텔레콤(2.00%) 등도 상승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다.

상한가 4개를 포함해 520개 종목이 오르고 하한가 3개를 비롯해 281개 종목이 내렸다.

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.75포인트(0.54%) 오른 511.19에 거래되며 사흘 만에 반등했다.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억원과 36억원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기관이 62억원을 순매수했다.

/장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지역 땅값 6개월째 상승

지난달 광주 0.23%·전남 0.16% ↑

광주·전남 땅값이 미미하지만, 6개월째 상승세다.

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1월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땅값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.23% 올라 전월(0.20%)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.

광주 땅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7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지난 6월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.11월까지 누계 지가변동률도 0.08%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.

광주 땅값 상승률은 2005년 1.86%에서 2006 1.44%, 2007년 0.94%, 지난해 -0.89%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.

지난달 광주지역 토지거래량은 4천688필지 99만6천㎡로,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필지 수로는 3.9% 증가했으나, 면적으로는 -29.9% 격감했다.

전남지역도 지난달 0.16%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.

오름폭은 지난 5월 0.02%, 6월 0.04%, 7월 0.05%, 8월 0.08%, 9월 0.12%, 10월 0.19%로 점차 늘어가다 주춤하는 모양새다. 토지거래량은 1만3천225필지, 1천774만1천㎡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 수는 21.1% 늘었으나, 면적은 -16.1% 줄었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대기업 60% 새해에도 '비상경영'

글로벌 경기침체·환율 불안 위협 요인

30대 그룹 10곳 중 6곳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연합뉴스가 최근 삼성, 현대기아차, SK, LG 등 30대 기업(공정위 자산기준)을 대상으로 새해 경기 및 사업 전망을 주제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.

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의 비상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갈지를 묻는 말에 56.7%(17곳)가 '올해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겠다'고 답했고, 특히 1곳은 비상경영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이에 비해 '유동적'이라는 답변은 23.3%(7곳)였고, '확장·공격경영을 하겠다'는 응답은 16.7%(5곳)로 조사됐다.

대다수 기업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겪은 올해처럼 새해에도 비상경영을 유지하려는 것은 환율 등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실제로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변수로 43.3%(13곳)와 30.0%(9곳)가 각각 '환율불안'과 '국제경기 침체'를 꼽았고, 13.3%(4곳)는 국제유가를 지적했다.

이밖에 남북 관계를 비롯해 가계부채 증가,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 혼란, 고용불안, 내수 경기 침체를 위협요인으로 든 소수의견이 있었다.

내년도 투자 계획으로는 '확대'와 '현상 유지' 의견이 백중세를 보였다.

내년 투자를 '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'는 응답이 43.3%(13곳)인 반면, '10% 이상 확대'는 16.7%(5곳), '5~10% 미만'은 23.3%(7곳)로 나타났다.

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없었으나 13.3%(4곳)는 '불확실한 여건으로 미정'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.

/연합뉴스